

Left21.com

2010년 11월 18일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특별 2호

리포트21

“우리는 정규직이다! 정몽구가 나와라”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4백여명이 트럭2공장을 점거했다.

쥐20마리가 모인 G20 쇼가 끝나자마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언제 잘릴지 몰라 마음 졸이며 화장실도 눈치보며 갔던 노동자들이,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서 정몽구의 목덜미를 잡아 버렸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인 현대차에서, 노동자가 손을 놓으면 자동차를 만들 어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의 주인공은 바로 동지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점거

파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있다.

정몽구는 시트1부를 초전박살내서 비정규직 투쟁의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자던 사자를 건드린 꼴이 됐다.

지금 정몽구는 무섭게 번져가는 투쟁의 불길 앞에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다. 관리자와 용역강패들의 폭력에만 매달리고 있다.

더구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바람빠진 풍선같은 처지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정몽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저울의 추는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은 우리에게 있다.

현대건설을 인수할 돈 6조 원은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돈 2천 5백억 원은 없다는 정몽구의 논리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굳건히 1공장 점거 파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정몽구는 우리가 라인을 세우고 있을 때만 인간으로 대접할 것이고 교섭에 나올 것이다. 점거를 유지하며 아래로부터 민주적 토론을 통해 투쟁 방향을 결



파업 지지 물품을 전달하는 1.5 공장 정규직 조합원들

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처럼 울산 내의 다른 공장과 전주 공장, 아산 공장으로 점거와 파업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1공장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빨리 정몽구를 무릎 꿇릴 수 있다. 1공장이 고립되고 장기화 되어서 지치는 것은 정몽구가 바라는 바다.

무엇보다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를 계속 적극 호소해 나가야 한다. 정몽구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일터를 망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려고 한다’ 등 온갖 이간질로 단결을 깨트리려 할 것이다. 정몽구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틈이 생겨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왜 이 투쟁이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현대차 전체에서 고용 안정과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투쟁인지를 분명히 알려내며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를 확대시켜야 한다. 그 점에서 정규직 이경훈 집행부가 ‘앞으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며 투

쟁의 김을 빼고 연대 투쟁이 아닌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지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도 당당하게 연대를 요구해야 한다. 지금 동지들의 투쟁은 40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자,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시달리는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자, 저질 일자리와 실업에 고통받는 청년 학생들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동지들은 연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연대 집회와 연대 파업,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요구하자.

지금 전국 곳곳에서 차별에 억눌려 온 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물래 울면서 설움을 견디던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 당해 절망하던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보여 주자. 동지들의 어깨에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려 있다.

투쟁과 연대의 목소리

“가슴이 벅찬 느낌에, 직장 사무실에서 뉴스 찾아 보면서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사람을 몹시 떨리게 하는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울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 시민

“촛불투쟁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둠 속에서 집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다 돌리고 오는 손수레 안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알미늄 강통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집사람은 말했습니다. ‘강통을 모아 팔아서라도 버틸테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 비정규직 해고자 변창기

“우리 30명으로 사측 관리자 400명에 무모하게 도전한 것 같았지만 1공장 점거 파업의 불씨가 돼서 기분이 좋다. 난 이미 현대차 정규직인데 조서 꾸미는데 무직이라고 적혀 있어 제일 기분 나빴다.”

— 시트1부 조합원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를 공유하며 연대 의식을 느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이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나의 투쟁, 정규직의 투쟁이다.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3공장 정규직 허성관 대의원

“더 이상 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며, 7개 현장조직은 사활을 걸고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 금속민투위, 민노회, 민주현장, 전현노, 평의회, 현장투, 현장혁신연대